

# 베테랑의 귀환... 내야 '탄탄' 순위 싸움 '든든'

'허벅지 부상' 나주환 1군 복귀  
'수비 부실' 장영석·황윤호 말소

KIA 9년만의 삼중살 수비 등  
위급할 때 마다 3루서 알토란 활약  
김주찬 이어 베테랑의 힘 가세

새얼굴 류지혁과 내야 안정화 기대  
류, 종아리 점검에 1군 등록 미뤄

KIA 타이거즈가 베테랑의 '알토란' 활약으로 내야 안정화를 노린다.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에서 싸움이 3연패를 당한 KIA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엔트리 카드를 사용했다.

KIA는 지난 8일 '실수 연발'의 장영석, 황윤호와 류지혁과의 트레이드로 두산 선수가 된 홍건희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대신 9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앞서 허벅지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베테랑 나주환과 내야수 최정용, 외야수 오선우를 풀업했다.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류지혁은 지난 7일 경기에서 종아리에 공을 맞은 여파로 등록이 미뤄졌다.

등록 선수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이는 나주환이다. 수비에서 잇달아 승리가 새어나갔기 때문에 베테랑의 경험이 성적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무상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KIA로 이적한 18년 차 나주환은 시즌 전까지 큰 기대를 했던 자원은 아니다.

지난 시즌 94경기에서 나와 0.222의 타율에 그쳤고, '미래 육성'이 팀의 시급한 목표가 되면서 37세라는 나이도 부담이었다.

하지만 나주환은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혼돈의 내야에서 빛나고 있다.

자신의 고민대로 타격은 부족하다. 나주환은 부상 전까지 16경기에서 나와 40타수 5안타로 0.200의 타율에 그쳤다.

하지만 극적인 활약도 있었다. 5월 23일 SK전에

서 홈런 포함 3안타 경기를 하며 팀에 승리를 안겨줬다.

무엇보다 윌리엄스 감독이 우선 강조하는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다.

나주환은 5월 20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재치 있는 삼중살을 연출하는 등 '무주공산'이 된 3루에서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줬다.

안지흥을 놓친 KIA는 올 시즌 김선빈-박찬호로 '키스톤 콤비'를 새로 꾸리고 3루 빈자리를 장영석으로 채우려고 했다. 지난 시즌 막바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 황윤호도 내야의 미래로 주목했다. 하지만 공-수에서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은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수비력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박찬호까지 불안한 수비를 보이며 내야의 고민이 쌓였다. 결국 KIA는 마운드의 마당쇠 역할을 해주던 홍건희를 내주고 전천후 내야수 류지혁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감행했다.

경험이 부족하고, 수비가 거친 젊은 내야진 사이에서 나주환의 역할은 중요해졌다.

지난 삼중살은 나주환의 '경험'이 만든 결과물이다.

당시 나주환은 "미리 삼중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바운드가 크게 오지 않으면 삼중살을 노리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경험'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록.

나주환은 "수비는 경험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더 좋아지는 것 같다"며 "오히려 신인 선수들 타석에서 수비하는 게 어렵다. 기존 선수는 유행이나 스타일을 아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은 타격 스타일, 주루 실력 등을 잘 모르니까 수비가 더 까다롭다. 더 공부하게 된다"며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주환의 올 시즌 목표는 거창하지 않다. '70-80 경기, 5승 기어'가 나주환의 현실적인 목표였다.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팀에서 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베테랑'. 부상으로 쉬어갈 때도 나주환은 배팅볼 투수를 자처하며 베테랑의 역할을 했다.

거친 수비로 승리를 놓치고 있는 KIA가 나주환의 '경험'으로 내야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주환

## 아~ 기다리고 기다리는 펠리페 vs 나상호

광주 FC 신·구 득점왕

나상호, 성남에 6개월 단기 임대

9월 19일 맞대결...팬들에 빅 이벤트

'광주FC 출신 득점왕'의 대결이 K리그1의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11년 K리그에 뛰어들어 광주는 짧은 역사에도 신인왕, 득점왕, MVP 등을 잇달아 배출하면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득점왕에는 모두 세 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조국이 2016년 1부리그에서 20골을 넣으며 광주의 첫 득점왕이자 MVP를 차지했고, 2017시즌 이후 강등 뒤에는 나상호와 펠리페가 연달아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나상호는 2018시즌 16골로 안양 알렉스(15골)의 추격을 따돌리고 득점 1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펠리페가 수원FC의 치솟(18골)을 누르고 19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이 중 정조국과 나상호는 득점왕과 MVP를 동시에 차지해 주가를 올린 뒤, 다음 시즌 이적했다. 정조국은 2017년 강원FC로 팀을 옮겼고 나상호는 지난 시즌 도쿄FC로 떠났다.

'우승 주역' 펠리페는 올 시즌에도 광주 유니폼을 입으면서 K리그 무대에서 2020시즌을 보내고 있다. 각자의 길을 걷던 '광주 득점왕'이 올 시즌 처음으로 맞대결을 하게 될 전망이다. 상대는 펠리페와 나상호다.

광주가 올 시즌 K리그1으로 복귀했지만, 정조국이 남기일 감독의 부름을 받고 K리그2의 제주로 옮겨가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게 될 수 없게 된 상황. 나상호가 6개월 단기 임대로 경남 감독이 이끄는 성남 입단을 앞두고 펠리페와 K리그 무대에서 경쟁하게 됐다.

나상호는 지난해 세 소속팀에서 25경기에서 나와 2골, 리그컵 7경기에서 1골에 그쳤다. 올 시즌에도 팀 내 입지가 불안한 나상호는 K리그 이적을 추진해왔고, 단기임대로 성남에서 뛰는 방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나상호의 복귀 움직임에 광주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지만 최종 종착지는 성남으로 알려졌다.

두 득점왕으로 K리그1 벽을 뚫으려던 광주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광주팬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나상호의 성남행 소식에 섭섭한 심경을 토로한 광주팬들은 광주가 배출한 두 득점왕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두 팀이 다시 붙게 되는 9월 19일은 광주팬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날이 될 전망이다.

앞서 광주는 시즌 개막전에서 성남에 0-2패를 기록했다. 팬들은 물론 경남 감독과의 '동갑내기 사령탑'의 대결에서 패배가 된 박진섭 감독에게도 간절한 설욕전 날이다.

코로나19로 리그 일정이 단축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전 같은 시즌이다. 5경기 만에 결승골을 터트리며 위명업을 끝낸 펠리페와 적으로 돌아오게 된 나상호의 장외 경쟁이 올 시즌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펠리페



나상호

## 광주 FC 첫 승 수호신 이진형 '베스트 11'에

K리그1 5라운드

광주FC의 첫 승리를 지킨 골키퍼 이진형이 5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2020 K리그1 5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앞선 수원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선방쇼를 펼치며 광주의 무실점 경기를 이끈 이진형이 5라운드 최고의 골키퍼가 됐다.

광주는 이진형을 중심으로 한 철벽 방어를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펠리페의 결승골로 1-0으로 경기를

끝내며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5라운드 MVP는 돌아온 '블루드래곤' 이정용(울산)의 몫이었다.

이정용은 포항스틸러스와의 '동해안 derby'에서 멀티골로 팀의 4-0 대승을 이끌며 MVP에 선정됐다.

이정용은 전반 25분 주니오의 헤딩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문전으로 달려들며 오른발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K리그 복귀 다섯 경기 만에 나온 이정용의 득점이자 지난 2009년 7월 17일 강원전 이후 3975일 만에 터진 골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용의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11분 뒤에는 페널티킥 부근에서 원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멀티골에 성공했다.

베스트 매치는 5골이 터진 FC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가 선정됐다.

이동국의 멀티골을 앞세운 전북은 4-1 승리와 5라운드 베스트팀 영광도 차지했다.